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인용품이 확산된 이후 인간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을 재현하는 리얼돌은 현재까지도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섹스로봇과 같은 리얼돌은 그 도입 과정에서도 법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지만 이후 리얼돌의 특성상 신체의 사실적 묘사는 필연적이므로 그 적나라함만으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관해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반대로 리얼돌과 같은 도구가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사용자의 욕망 그릇으로 최적화하므로 그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화를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리얼돌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물로 정의된다. 자율적 행위자인 인간과 달리 리얼돌은 사용 주체와 성적 교감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계된 기계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의 성적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리얼돌의 본래적 기능과 무관하게 이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리얼돌은 포르노 판타지의 물질적 구현이자 공감각적 재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성적 취향은 자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된다. 성 행위에 의해 인간은 성별과 무관하게 욕구 충족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존재론적 지위나 성적 취향을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직 사용자 자신의 욕망만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리얼돌에서 재현된다고 그들을 말한다. 이처럼 성적 판타지를 구현하여 인간화된 리얼돌이 가지는 왜곡된 이미지가 인간에게 전이되어 인간의 사물화를 낳는다는 관점을 성적 유아론이라 한다.

리처드슨은 섹스로봇과 성매매가 갖는 유사성을 근거로 리얼돌이 인간의 사물화를 가속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 주장한다. 사람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반면 레비는 리처드슨과 달리 성매매가 갖는 비합법적·비위생적 문제가 오히려 섹스로봇의 사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실행 복잡성과 제약의 결여, 이성과의 관계 실패 경험과 같은 성매매의 주요 동기가 섹스로봇을 사용하는 이유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성적 유아론에 입각하여 리얼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섹스로봇의 사용이 단순히 사적 행위의 영역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리얼돌은 사용자가 그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전시욕, 과시욕 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리하여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자위 행위가 점차 집단적 유희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 리얼돌의 제작과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의 주된 논변은 리얼돌이 성적 유아론을 구축하여 성적 대상의 욕망과 실재성이 제거되는데, 이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구조는 실증적 자료 없이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상징적 의미에 기반한 논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증은 실제 인간이 보여주는 행위와 모습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권위를 가진 존재가 유사성에 기반한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리얼돌이 왜곡된 성규범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증에서 리얼돌이 그러한 규범을 가지게 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행위나 모습의 유사성으로부터 그 의미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외형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실재성이나 주체의 의미 부여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의미의 상징성이 실증 자료에 의해 부정되어 반대의 의미로 탈바꿈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물이나 현상은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퍼스의 기호적 의미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기호적 의미는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상징적 의미와는 다르다. 기호적 의미를 통한 기호적 해석은 기호와 지시 대상 사이에 물리적 경험과 실제적 연결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의 정당성은 언제나 실재적 경험 기반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기호가 되기 위한 상징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한다.

##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초기에 리얼돌이 신체의 사실적 재현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수입을 금지하였다.
- ②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리얼돌의 제작 및 사용화에 반대할 것이다.
- ③ 자율적 행위자로서 지위를 확보해야만 인공물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리처드슨은 레비와 달리 성매매와 성매매 로봇 간 유사성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성적 유아론 찬성론자들은 리얼돌이 성적 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5. 글쓴이의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물이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러한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②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성 행위에 해당한다면 리얼돌을 사용한 자위행위는 그로부터 발생할 부정적 결과를 공유하지 않게 된다.
- ③ 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상징성은 경험이 가능한 실증적 근거의 토대 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상징은 사회문화적 합의에서 생성되므로 모든 상징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⑤ 리얼돌의 상징성에 관한 판단은 경험과 무관하게 기호적 해석을 통한 기호적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례 A: 1950년대 포렌족은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병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근육이 마비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다수의 환자들은 얼굴 근육을 마음껏 쓰지 못하여 숨지게 되었다. 1976년 이 병을 조사한 결과, 동종이 동종을 음식으로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광우병의 한 종류임이 밝혀졌다. 포렌족은 1980년대부터 전해오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시체를 부족끼리 나눠먹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 그의 생전 기억과 영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장례 문화를 지속하지 않게 되었다.

사례 B: 북, 행운이라는 뜻의 ‘하켄크로이츠’는 수천 년부터 사용되어 온 산스크리트어이다.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게르만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이고 신성한 기호로 여겨져 태양 숭배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히틀러는 이를 나치당의 문양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투쟁하는 사람의 승리를 의미하는 하켄크로이츠는 게토 강제 이주, 아우슈비츠 학살 등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하켄크로이츠를 휘두른 권력의 기억은 대중들에게 강력히 각인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역에서는 하켄크로이츠를 대량학살 및 파시즘을 띄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적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 ① 식인 풍습이 망자와의 정신적 연대와 애도의 상징으로 기능했다는 데서, A에서의 초기 상징이 갖는 의미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하켄크로이츠가 투쟁하는 사람의 승리를 나타내는 나치당의 문양으로 쓰였다는 데서, B에서의 하켄크로이츠는 20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상징이라 부를 수 없겠군.
- ③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 관계가 드러나 기존의 풍습이 폐기되었다는 데서, A는 ㉠과 마찬가지로 실재성이나 주체의 의미 부여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하켄크로이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데서, B는 ㉠과 달리 실제 사건이 상징을 고정화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A와 B는 ㉠과 달리 유사성에 기반하여 부여된 상징적 의미가 실증적 증거를 통해 제거된 사례에 해당하겠군.